

전래 노래 속 남산의 나무

2020년에 이어 올 추석에도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'전래 노래' 속 남산의 나무를 소개합니다. 재미있는 노랫말을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.



아까도 서어나무(3월)



푸르러도 단풍나무(4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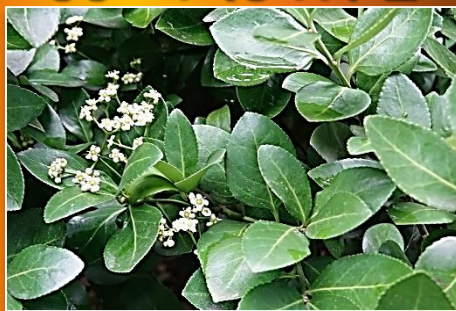
빵빵 쏘아 딱총나무(4월)



잉잉 엉엉 때죽나무(5월)



말아 먹자 국수나무(5월)



사시사철 사철나무(6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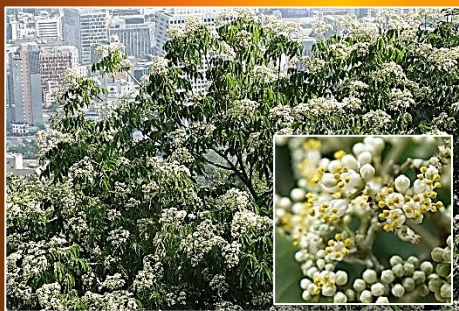
군침 돈다 신나무(6월)



자는 귀신 자귀나무(6월)



쿨쿨 잔다 잣나무(6월)



아가에게 쉬나무(7월)



깨자마자 졸참나무(8월)



누린내에 누리장나무(9월)

[그리고 또~] 향기 난다 향나무, 재 노랗다 노린재나무, 먹고 보자 이팝나무, 목돈 되네 은행나무, 더럽구나 쥐똥나무, 참거라 참나무, 속 비고 대나무, 밤에 보자 야광나무, 나 좀 봐요 주목

